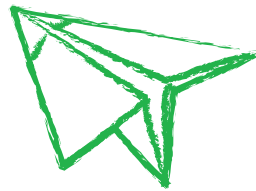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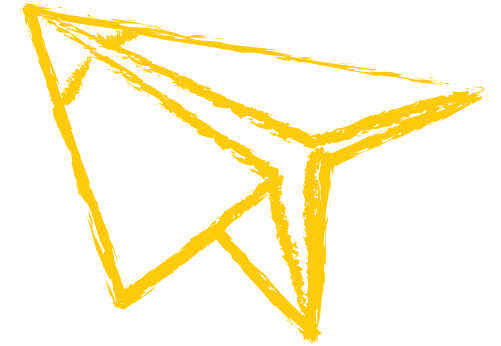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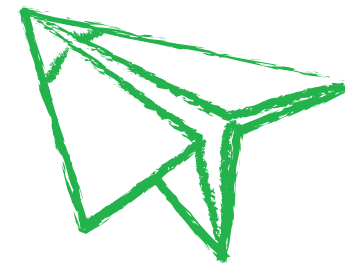
2007  
Presidential Committee on  
Facilitating KORUS FTA



'FTA 관련 대학생 광고 및  
고교 논술 공모전' 수상 작품집



# 대한민국 미래의 밑그림을 그려라



## “대한민국 미래의 밑그림을 그려라”

본作品集은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위원회가 한 달(7.19~8.19)동안 진행했던 ‘FTA 관련 대학생 광고 및 고교 논술 공모전’ 수상작 21편(광고 8편, 논술 13편)을 묶은 것입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학생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민적 이해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창의적인 광고아이디어를 제출 하도록 했고, 고교생의 경우 제시된 두 개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그 견해에 대해 논리적, 현실적 타당성을 서술하도록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우리의 미래 주역인 대학생 및 고교생들이 참가하여 대한민국 미래의 밑그림을 그리는 열띤 장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주최한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대학생 및 고교생 여러분 및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본作品集이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 고교생 논술 공모 주제

1. 최근들어 증가추세에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은 국가간 통상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국민, 기업, 정부의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은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국민, 기업, 정부 각각의 주체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와 방안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 양극화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WTO나 FTA 등을 통한 시장개방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시장개방이 양극화 완화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양주장의 타당성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 목 차

## 광고공모전 수상작 ◇..... 1

### ■ 금 상

- 경일대학교 패션산업디자인과 박진현 ..... 3
- 동명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정재철 ..... 4

### ■ 은 상

- 동국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김홍인, 차진아, 서반석, 박세희 ..... 5
- 경남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강주희 ..... 6

### ■ 등 상

- 건국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이성희 ..... 7
- 남서울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과 조양래, 한명규, 하동수, 임지호 ..... 8
- 고려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권대웅 ..... 10
- 경일대학교 패션산업디자인과 박진현 ..... 10

## 논술공모전 수상작 ◇..... 11

### ■ 위원장상

- 시장 개방과 양극화, 한국 경제라는 매개 변수를 고려한다면\_ 이종욱 / 보성고등학교 ..... 13

### ■ 재정경제부장관상

- 양날의 칼, FTA\_ 정구한 / 세광고등학교 ..... 17

### ■ 우수 상

- 한국무역협회장상
- FTA 위에서 파도타기\_ 박용태 / 세광고등학교 ..... 21

대한상공회의소장상  
뜨거운감자, 시장개방은 위기이자 기회\_ 이원석 / 명덕외국어고등학교 ..... 25

전국경제인연합회장상  
위기를 기회로 - FTA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방안\_ 고정인 / 청석고등학교 ..... 29

중소기업중앙회장상  
FTA에 대한 우리의 역할\_ 이샛별 / 대구 남산고등학교 ..... 33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상  
정부는 정부답게, 기업은 기업답게, 국민은 국민답게\_ 정연우 / 대일외국어고등학교 ..... 37

한국개발연구원장상  
한미 FTA, 우리의 미래\_ 김경아 / 연수여자고등학교 ..... 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상  
FTA는 도약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_ 김세호 / 대일외국어고등학교 ..... 45

산업연구원장상  
컬럼버스의 달걀\_ 박송희 / 인천 영선고등학교 ..... 49

■ 장려상

FTA대포팀,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_ 김태영 / 부산 금성고등학교 ..... 53

FTA시대, 바람직한 대응방안\_ 최보윤 / 경산여자고등학교 ..... 57

FTA를 통해 평등한 경쟁사회 이룩하기\_ 민하연 / 광문고등학교 ..... 61

## ■ □ 광고 공모전 수상작

---

### ■ 금 상

경일대학교 패션산업디자인과 박진현  
동명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정재철

### ■ 은 상

동국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김홍인, 차진아, 서반석, 박세희  
경남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강주희

### ■ 동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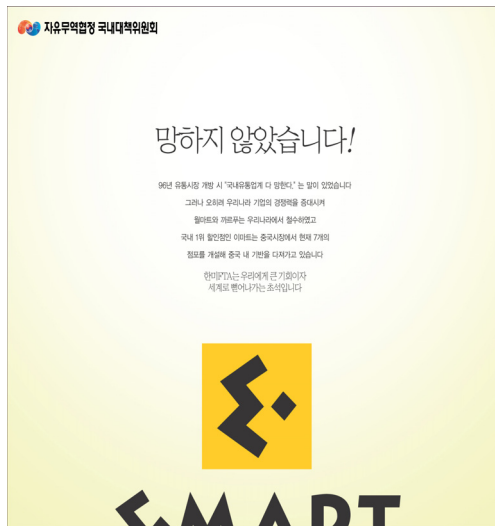
건국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이성희  
남서울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과 조양래, 한명규, 하동수, 임지호  
고려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권대웅  
경일대학교 패션산업디자인과 박진현

금상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경일대 패션산업디자인과 | 박진형






금상

흐르는 물처럼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동명대 시각디자인과 | 정 재 철




●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광고 공모전

Audio		video
배경음악 : 잔잔한 음악이 흘러 나온다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다.
NA : 아무리 깨끗한 물도 흐르지 못하고		물이 탁해 버린다.
NA : 환경에 고여 있으면 백에서 색깔이 사라져서 물이 되지만		물이 완전히 검정색 변화 버린다.




●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광고 공모전

Audio		video
NA : 하지만 흐르는 물은 언제나 깨끗함을 유지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갑니다.		시원스럽게 흐르는 깨끗한 물과 물고기를 잡는 새가 보인단다.
NA : 이렇듯 우리 경제도 세계와 순환하지 못하면		한반도가 보인단다. 한반도 내에서만 화살표가 움직인다
NA : 고인물처럼 세계에 뒤처져 죽어가는 경제가 될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 보이고 세계는 서로 화살표들이 순환하면서 나타나지만 한반도만 화살표는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단다.

●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광고 공모전

Audio		video
NA : 하지만 흐르는 물처럼 세계와 자유로운 순환이 되면		한반도의 화살표가 세계로 뻗어 나가고 세계와 화살표가 한반도로 서로 자유로이 이동한다.
NA : 우리의 경제는 흐르는 물처럼 건강한 경제, 청산 경제가 될것입니다.		세계와 자유로운 교류를 하는 화살표들이 보여진다.
		한반도가 빛이 나면서 움직이 된다.

●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광고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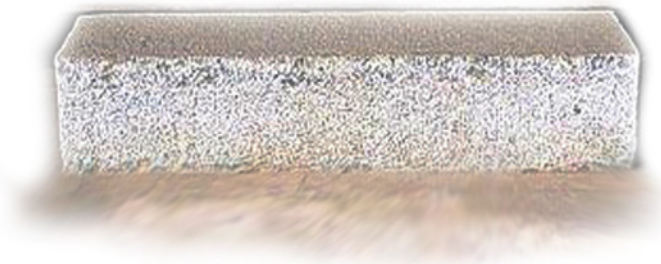
Audio		video
NA : 자유무역협정 FTA		화살표들이 대각리대로 뻗는다
NA : 우리의 경제를 더욱 빛나게 만들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줄고줄 뻗는다. 그리고 지도는 흑이해 진다.
		

인상

‘결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동국대 광고홍보학과 | 김흥인·차진아·서반석·박세희



‘결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넓은 곳을 보게 됩니다.

세계 속에서 경쟁하는 우리나라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우리나라!

‘FTA’가 그 발걸음의 디딤돌이 됩니다!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인사

## 한미FTA 비준 동의 국민투표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경남대 컴퓨터공학부 | 강 주 희

## 한미 FTA 비준 동의 국민투표

1	찬 성	
2	반 대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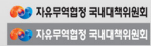


더 좋은 대한민국을 찬성합니다.

한미 FTA는 세계화와 무한경쟁에 맞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더 큰 세계로 나아가고 싶다면!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이젠 개방해야 할 때입니다.**




동상

개방의 바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건국대 시각디자인과 | 이 성 희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개방의 바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개방할 때마다 반대가 있었고 괴담이 국민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상 실패한 개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개방의 바람으로 채울때 더 멀리, 더 강하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방과 경쟁입니다

동상

우리가족이야기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남서울대 | 조양래 ·한명규 ·하동수 ·임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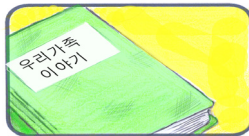
●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광고 공모전

AUDIO

나: 우리 가족 이야기 들어 보실래요?

책장을 넘기는 소리

나: 이걸 우리 누나 사진이네요. 유통회사에 다니던 우리 누나는 96년 유통시장 개방에 큰 걱정을 했었어요. 하지만 얼마 후 누나 회사는 오히려 경쟁력을 키워 사업을 확장하였고 누나는 중국으로 출장을 갔죠. 어린 마음에 중국으로 출장을 간 누나가 너무 부러웠답니다.



VIDEO

우리 가족 이야기라는 제목의 앨범이 나온다.

앨범의 커버를 넘기는 모습.

걱정스런 누나의 옛 사진과 중국 출장에서 찍은 누나의 밝은 모습 대비.

●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광고 공모전

AUDIO

나: 그럼 다음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나: 02년도 IMF여파로 아버지가 실직을 해서 저희 가족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아버지는 다시 당당히 복직하셨고 어머니는 다시 환한 웃음을 찾게 되셨죠.

나: 이번엔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VIDEO

앨범을 넘기는 모습.

실직 당시 아버지의 고생하시던 모습과 다시 복직하셨을 때 출근길에 보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환한 웃음 대비.

앨범을 넘기는 모습.

●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광고 공모전

AUDIO

나: 03년 아버지의 실직 아들이 채가 시기도 전에 정부는 칠레와의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농사일 외에 관심이 없던 할아버지는 체결 이후 오히려 포도농장을 더 확장하셨고 고품질 포도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나: 이전 제 차례인데요. 이제 막 졸업한 사회로의 첫발을 내디딜 뜻뜻한 새내기입니다.



나: 하지만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번 한미 FTA 체결로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졌고요,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한 우리 가족이 있기에 저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VIDEO

열심히 농장을 가꾸던 할아버지의 모습. 고품질 박스 포도를 배경으로 훈뜻해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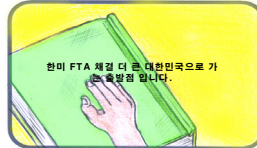
앨범을 넘기다가 자신의 졸업 사진이 나온다.

가족과의 졸업사진. 그 밑으로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칸의 사진 칸 대비.

●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광고 공모전

AUDIO

나레이션: 한미 FTA 체결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VIDEO

앨범을 넘으며 덮은 사진위로 헤드라인이 오버레이 된다.

동상

호루라기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고려대학교 산업디자인과 | 권대웅



동상

열지않고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경일대학교 패션산업디자인과 | 박진현



## ■ 논술공모전 수상작

**논제** 1. FTA에 대한 국민, 기업, 정부의 태도와 방안

**논제** 2. 시장개방에 따른 양극화 가능성

## ■ 위원장상

논제 2 : 시장개방에 따른 양극화 가능성

# 시장 개방과 양극화, 한국 경제라는 매개 변수를 고려한다면

보성고등학교  
2학년 9반 이 중 욱

우리나라의 냉장고 보급률과 위암환자 수 사이에 정(正)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통계가 있다. 통계에 따르면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이 위암의 원인이 된다는 일반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계 해석은 피상적인 관찰의 결과일 뿐이다. 의료서비스의 확산으로 평균 수명도 늘어나 그만큼 위암에 노출될 기회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통계 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과거와 달리 위암 환자의 집계가 더욱 정확해진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이러한 통계는 냉장고가 일반적으로 보급되면서 염장 식품(鹽藏 食品)의 섭취가 줄어 위암 발생률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와도 상충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 현상에는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부 측면만을 살펴 그 결과를 성급히 일반화해서는 정확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없다. 시장 개방과 양극화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양극화 문제를 두고, 시장 개방이 이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예상은 지나친 예단(豫斷)이다. 특히 한국 경제라는 결정적 변수까지 총체적으로 고려하면, 시장 개방이 오히려 현재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결정적 해법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 개방이 양극화 심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는 부류는 NAFTA 이후의 멕시코를 사례로 든다. 그러나 멕시코의 시장 개방이 양극화 심화라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해서 한국에서도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한국과 멕시코 경제는 성장 잠재력이나 노동력의 질, 기술력 등에서 근본적으로 저변(底邊)이 다르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미 경제 의존도가 크고, 경제 동조화(經濟 同調化) 경향이 매우 강하다. 9.11 테러 이후 미국 경제가 침체하자 더불어 불황을 맞아 실업률이 크게 증가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R&D 비중도 전체 GDP대비 0.39% 수준에 그쳐, 제조업의 경쟁력이 우리에게 비해 매우 취약하다. 이 때문에, 저부가가치 ‘마킬라도라’ 산업을 미봉책으로 제시했으나 안팎에서 노동력 착취라는 비난만 자초했을 뿐 당초 기대했던 양질의 일자리는 거의 창출해내지 못 했다. 그리고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의 무능력, 사회정책의 부재도 이 같은 멕시코 양극화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시장 개방의 충격을 흡수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개방을 폭 넓게 수용해, 결국 양극화가 회복 불능의 단계에 이른 것이다.

한국은 이와 달리 R&D 비중이 전체 GDP대비 2.59% 정도로 이는 OECD 가입국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제조업의 경쟁력도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일부 산업은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런 토대에 시장 개방으로 선진적 경영기법과 첨단 기술이 유입되고 외국 자본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한미 FTA 체결 후 5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되었다.

한편,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시장 개방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이 점차 첨단 산업으로 옮겨 감에 따라 고학력 고기술 노동자와 저학력 저기술 노동자 사이의 소득 격차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 개방을 계기로 전략적 산업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면, 시장 개방으로 인해 실직한 노동력을 고기술 노동자로 전환시켜 성



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양극화 완화의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도 살펴야 한다.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한국인의 근면성과 발전 의지는 1970~80년대의 개발과정을 거치면서 뚜렷이 확인됐다.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의 몰락에서 보듯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사회적 계층 이동의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장이 확대되고 다변화(多邊化)되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국민적 특성과 어울려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낼 수 있다. 그리하여 계층 구성원들이 자기 계발과 발전의 지를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면 이는 곧 양극화 완화의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2차 대전 패전국이었던 독일의 재건이 좋은 사례이다. 독일은 나치즘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방 정책을 추진해 오늘의 주도적 국가 지위를 확보한 것은 물론, 전세의 극단적 양극화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다.

멕시코와 다른 한국의 견고한 사회 안전망도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무역지원조정법, 폐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시장 개방의 여파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부문에 대한 지원책을 내어 놓았다. 이러한 사회 제도를 바탕으로 ‘사회적 사다리(social ladder)’를 통해 시장 개방을 획득한 부를 적절히 분배하게 되고, 이는 곧 개별 국민의 소득 평준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기대도 가능하다. 시장이 전 세계로 확대되어 경쟁이 심화되면 기업들이 보다 적은 가격에 보다 나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는 가격 하락 및 품질 제고로 이어진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라 대체재들의 가격이 하락한 것이 좋은 예이다. 수입 재개의 여파는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한우, 심지어 호주산 쇠고기까지 미치고 있다. 작은 가격 변화에도 민감한 저소득층이 시장 개방의 가장 큰 수혜계층이 될 수 있음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장 개방이 확대된다면 그 혜택의 범위도 확대될 것임은 자명하다.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선진적 경영기법이 도입되고 시장 경쟁에 따라 생산성이 제고되면 생산 원가도 절감된다. 원가 절감은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이 많아짐을 뜻하며, 이는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 구성원들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 임금 상승으로 인한 분배 효과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욱 큰 파급효과를 보인다. 절대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같은 폭의 임금 상승이라도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시장 개방이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시장 개방의 충격이 흡수되기 전에는 임금이 단기간 정체를 보이지만, 1991~2005년 사이에 소득 하위 20% 가구의 임금 상승률이 80%에 달해, 상위 가구의 상승률 20~50%를 훨씬 웃돌았다. 미국의 사례가 한국에서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한국 경제의 체질이 멕시코보다 미국에 가깝다는 점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양극화 개념은 소득 격차의 심화를 의미해 왔다. 경제적 격차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 학력은 물론, 기회까지도 극단적으로 가르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했다. 시장 개방은 이 기준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컨대 교육 시장이 개방되면, 지금의 입시위주 교육에 다양한 변화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대학과는 다른 기준에서 잠재력이 인정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들이 들어서면, 지금의 우리 교육 체제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많은 학생들이 그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곧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다극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일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양극화 상황 아래에서는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라고 비유한다. 그 독에 물을 채우려면 미리 손을 보고 나서 물을 부어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독이 넘치도록 물을 부어주면 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막대한 부(富)를 창출하는 시장 개방이다.

## ■ 재정경제부장관상

논제 1 : FTA에 대한 국민, 기업, 정부의 태도와 방안

# 양날의 칼, FTA

세광고등학교  
2학년 3반 정 구 한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 지구가 하나의 마을과 같이 변하고 있다는 ‘지구촌’이라는 단어는 이제 무미건조한 말이 되었을 정도로 세계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가 제국주의의 다른 이름이라는 주장도, 각 국가들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세계화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논하는 것을 떠나 세계화의 진행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서 여러 국가들은 타국과의 경제적 통합을 꾀하는 FTA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분분하다. 우리나라에 있어 한미 FTA로 인해 더 큰 이익을 얻는 분야가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피해를 입는 분야도 분명 있다. 그런 만큼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미 체결된 협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맞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FTA를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 고심하는 것이다. FTA가 위기가 되느냐 기회가 되느냐는 국민, 기업, 정부, 세 가지 경제

주체 각자의 역할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국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소비하는 것이다. FTA가 발효되면 시장은 단계적으로 개방되어 더 많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진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소비자의 선택권은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택하느냐는 전적으로 소비자, 즉 우리 국민에게 달려 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신토불이’,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구호 아래 품질, 가격 등의 요소를 무시하고 국산을 맹목적으로 선호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경향이 짙다. 하지만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이러한 폐쇄적인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어떤 상품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양질의 품질을 추구하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소비해야 한다. 오직 국산만을 고집하는 것은 국내기업에게 절대적 독점권을 주어 비싸지만 품질은 나쁜 상품이 생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자칫하면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포기로 말미암아 경제발전의 밑거름 중 하나인 외국 자본의 유입이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마저 있다. 물론 외국산 상품만을 선호하는 소비행태 역시 옳지 못하다. 이러한 현상은 수입량 증가를 낳아 엄청난 무역 적자를 초래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경제적 속국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은 단순한 애국심에서 발현된 국산의 맹목적인 소비나 무분별한 외제 선호를 지양하고 소비자 스스로의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이른바 ‘비판적 소비’를 하는 것이 좋다. 최근 한미 FTA의 결과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었다. 이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이 꽤 괜찮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국내 축산업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즉 비싼 한우나 위생적 문제점을 가진 미국산 쇠고기냐의 선택상황에서 소비자의 ‘비판적 소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FTA의 체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기업이다. 해외 시장 진출이 훨씬 더 용이해질 것과 동시에 국내에서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

에 기업에게 있어 FTA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분야별로 의견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업은 FTA를 기회로 여긴다. FTA의 타결로 해외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에서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소형 차량에 대해서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승할 전망이다. 하지만 몇몇 산업분야에서는 FTA 때문에 한국 기업이 다소 피해를 입게 될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제약 산업이다. 해외 거대 제약 회사들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제 약품을 만드는 국내 중소 제약 회사들은 FTA의 특허권 강화 조항 때문에 신약 개발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즉 FTA가 위기로서 다가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위기를 새로운 약의 개발로 극복한다면 FTA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한다면 독자적 기술을 보유한 당당한 기업이 될 것이다.

결국 기업에게 있어 FTA를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경쟁력 강화이다. 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 인하나 신약 제조 기술 보유는 모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요소들이다. 이처럼 경쟁력 갖춘다면 앞에서 언급한 ‘비판적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어 기업의 궁극적 목표인 이윤창출이 극대화될 것이다. 이 경쟁력은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필수적이다. 국내 유통업체가 해외 거대 유통업체를 인수한 사례는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업은 FTA를 걱정만 하지 말고 경쟁력을 튼튼히 하여 이것을 국내 시장에서는 보다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또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야 할 것이다.

FTA에 대응한 국민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 국가는 FTA를 체결한 장본인이지만 동시에 FTA로 인한 부정적 결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할 의무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FTA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정책의 경우, 국가는 국내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최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R&D 사업을 실시, 기업에게 기술을 제공한다면 기업으로서는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경

쟁력을 갖추게 된다. 이는 해외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FTA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미 FTA로 인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농수산업 분야이다. 아무래도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 농수산품의 약세는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세계적 수준인 우리나라의 유전공학을 이용해 농수산업계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 일본의 경우 소를 개량하여 와규(和牛)라는 특산품을 만들었는데 외국에 수출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한다. 이처럼 국가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후진 산업 향상에 힘써야 한다.

또한 국가의 국민 보호 기능도 중요하다. 한미 FTA가 체결된 후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었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광우병 발병 등의 위험도 다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검역 실시, 유사시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통해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가 지나칠 정도로 자국 산업의 보호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해 타국과의 무역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적절한 이용이 필요하다. 이것의 성공적 사례는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산업이다. 국가는 고속철도 설치에 경쟁적으로 참여한 여러 해외 기업들 중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기업을 선정하여 성공적으로 고속철도 설치를 마쳤다. 이는 외국기업을 수용하면서도 실리를 챙긴 좋은 사례이다.

이처럼 국가는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와 동시에 외국기업에 대한 적절한 이용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기업이 활발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FTA는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다. 그 칼자루를 쥐는 것은 국민, 기업 그리고 정부이다. 3개의 경제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삼위일체가 될 때 그 칼자루는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나라가 그토록 염원하는 선진국 진입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다.

## □ 한국무역협회장상

논제 1 : FTA에 대한 국민, 기업, 정부의 태도와 방안

# FTA 위에서 파도타기

세광고등학교  
3학년 4반 박 용 태

마르크스가 말한 ‘공산주의라는 이름의 유령’이 20세기의 세계를 휩쓸고 지나갔다면, WTO체제 결성 이후의 세계는 급속한 지구촌화와 그에 따른 경제 개방의 파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미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된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헤엄쳐 나갈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의 70%, 경제성장률의 90% 이상을 무역이 책임지는 만큼, 원활한 무역의 가능 여부는 향후 우리나라의 흥망과도 직결된다.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될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의 전, 후 과정에서 각 경제 주체들의 노력이 중요하다.

우선 FTA 협상의 주체인 정부의 역할을 들 수 있다. 다른 국가와의 협상 과정에서 뛰어난 협상력을 발휘하여 양 국가 모두에 이득이 되도록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에 있어 더욱 우선해야 할 일은 FTA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받아내는 것이다. TV에 연일 보도되는 반대자들의 시위와, FTA가 불러올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과장적 예측이 난무하는 인터넷은, 협상의 내용과 이것이 불러올 결과에 대하여 잘 모르는 국민으로 하여금 FTA에 대한 부정적 시각만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정부는 협상 결

과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익과는 관계없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따라서 대국민적인 설득과 이에 따른 의사결정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60~70년대 독재정권의 ‘정부의 결정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하라’ 식의 강압적인 방법은 국민의 반발을 불러올 뿐,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때문에 정부는 FTA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객관적으로 제시한 후,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을 상쇄할 수 있음을 적극적인 홍보정책을 통해 알림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각 국가간 비교 우위 이론에 의해서 상호가 더 큰 이익의 총합을 노리는 것이 무역의 목적인만큼, 우리나라에 이로운 분야가 있다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분야도 생기기 마련이다. 때문에 FTA 체결에 의한 국가 전체의 균일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FTA에 의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올바른 대책의 마련과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불안과 불만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협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각 분야에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분야는 전보다 더 큰 부를 누리는 반면, 손해를 보는 분야의 종사자들은 몰락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심해져서, 전 국민이 갖는 이익의 평균이 오히려 감소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협상 체결 이후의 경제에 대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제시하여 대국민적 평가와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FTA가 산술적 합으로는 우리나라에 이익을 가져다줄지라도, 그 이익이 균형적으로 분배되지 못할 경우에는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FTA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협상이 체결된다면 이에 의해 혜택을 누리는 것도, 피해를 입는 것도 국민이다. 또한 FTA 협상의 경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FTA의 체결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갖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그 누구보다도 협상의 진척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때 협상에 대한 일면만 보고서 상황을 무작정 공



정적, 또는 부정적으로만 보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 FTA를 보는 각계각층의 시각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맞물려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의견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따라서 국민은 정부나 기업, 언론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최대한 객관적 시각을 확보하려 노력해야 한다.

만약 위의 과정을 통해서 FTA의 체결이 우리나라의 전체적 이익을 위해서 이롭다는 판단이 섰을 때에는, 정부의 협상정책을 지지하는 협조적 자세도 중요하다. 의회에서 진행되는 FTA 체결여부의 결정은 결국 국민의 뜻에 달렸으므로, 협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보다는 지지의 여론을 보여주는 것이 FTA의 체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조선시대 후기 개화당이 일으킨 갑신정변은 신분평등이나 과부재가와 같은 혁신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다. 정부 정책은 그 목적과 가져올 결과가 아무리 이로운 것일지라도 국민의 지지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FTA에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발견했다면, 정부의 능력을 믿고 이를 지지하는 것이 더 원활한 협상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FTA가 체결된 이후의 바뀐 통상환경에서 적응해야 할 기업의 역할을 들 수 있다. FTA의 체결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위기로, 또는 기회로 작용한다.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원래 있었던 국내 기업은 물론, 다른 국가의 동류 기업과도 경쟁해야 하지만, 변화될 환경에 잘 적응할 수만 있다면, 예전보다 넓어진 시장에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때문에 각 기업들은 변화될 시장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놓지 않고, 원활한 적응을 위해서 기업구조를 혁신해 나가야 한다. 특히 FTA 체결에 의해서 가시적인 혜택이 예상되는 기업의 경우, 한국의 긍정적인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긍정적인 평가로 인한 한국의 이미지 상승은, 결과적으로 다른 한국 기업의 제품에 후광효과로 발현하기 때문이다. 현재 해외에 진출한 특정 한국 기업들의 고급화, 차별화 전략은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국가’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최첨단의 기술력으로 고급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의 이미지로 바

꾸는 데에 일조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FTA 체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도 낙담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 이미지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의 창출은 어느 기업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농,축산업의 경우는 가까운 이웃 일본의 선례를 배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일본은 돼지고기의 생산원가가 우리나라보다도 높아서, 시장개방 이후의 양돈산업은 거의 생존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와 특별한 맛을 가진 브랜드 돼지고기의 개발 등의 혁신은 가격대비 품질이 뛰어난 호주, 미국산 등을 제치고 일본 내 육류 자급률을 약 60%까지 끌어올리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일본보다 입맛이 까다롭고, 건강에도 특별히 민감한 국내 소비자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농산품을 생산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시장점유는 물론, 소수생산의 특징을 살려서, 대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해외시장에의 진출까지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거대한 파도를 바라보고 있는 서퍼(surfer)의 마음으로 시장개방을 대하여야 한다. 균형을 잡지 못하여 실수한다면, 시장잠식이라는 바다에 빠져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나, 굳게 마음을 먹고 과감하게 파도에 맞선다면 그 누구보다도 높이 파도를 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그 어느 민족보다도 위기에 직면하여 그 위기를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삼는 능력이 뛰어났다. 거란의 침략을 오히려 강동6주를 얻는 계기로 삼았던 고려시대에 그랬고, 1차 오일쇼크를 중동진출로 극복해냈던 1970년대에 또한 그랬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시장개방의 위기 또한 정부, 국민, 기업이 합심, 단결한다면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으며, 오히려 시장잠식의 위기를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 대한상공회의소장상

### 논제 2 : 시장개방에 따른 양극화 가능성

## 뜨거운감자, 시장개방은 위기이자 기회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2반 이 원 석

마치 나라의 명운이 걸린 듯 한미 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교차하던 지난 봄,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정이 타결되었다. 어떤 이들은 구한말 외세에 의한 '개국'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이제야말로 아시아의 허브를 향한 새로운 개방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약자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진 자의 배를 채우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요 불평등의 시작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한다. 이렇듯 인식의 차가 큰 시장개방의 문제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볼 때라 생각된다. 과연 세계화, 개방화의 추세 속에 우리 한국경제의 현주소는 어떠하며 FTA를 통한 시장개방이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해결책을 모색해 보기로 하자.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는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심화되었다. IMF 이후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세계시장 조류에 맞춘 급격한 구조조정은 내수시장 침체와 경제성장동력 약화로 나타났다. 수출증대가 투자고용 증대, 소비증가로 이어지던 그간의 수출과 내수간의 선순환 고리는 약화되었다. 더 나아가 기업들은 임금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게 되고,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들이 대다수 자영업자로 전환하자 자영업자 간에 과당경쟁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신용불량자의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급등은 내수시장을 더욱 침체하게 만들었다. 그 와중에 개방물살과 함께 급부상한 중국경제에 추격당하면서 경공업 분야마저 중국에 내주고 활로를 잃었으며 갈 곳 잃은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피부에 와닿는 사회적 부의 편차는 더욱 심해져 지금 우리사회는 산업구조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가치관의 양극화라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돌파구로 정부는 FTA 협상을 추진하였다. 수출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가 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오히려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한미 FTA를 통한 적극적 시장개방으로 성장잠재력도 크고 산업전반에 파급효과도 큰 IT 산업, 자동차사업, 지식관련서비스분야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상대적 취약계층에 재분배함으로써 미래지향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보는 사회의 시각은 상반된 입장으로 팽팽히 갈라지고 있다.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시장개방과 양극화에 대한 입장은 얼마나 타당할까 우선 찬성하는 쪽의 논리를 살펴보자. FTA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이다. 한마디로 국가 간 거래에 활주로를 깔아주는 일이다. 따라서 FTA, 특히 한미 FTA의 체결은 우리로 하여금 국제거래의 시스템을 선진화 시켜주고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높여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의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또 관세장벽의 제거로 우리가 강한 산업분야(섬유, 철강, 조선, 자동차 등)의 수출이 활성화되면 경제규모 역시 확대된다. 한편 미래 산업으로 촉망 받는 IT나 생명공학 분야는 우리의 제품개발력과 미국의 원천기술이 자연스럽게 만나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으로 이어지면서 미래 산업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농업분야의 구조조정 등의 아픔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질 높은 일자리창출로 고용증대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양극화는 완화,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 한편 중국이나 일본

에 앞선 한미 FTA 체결로 동북아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우위를 점거하는 기회를 확보하는 부수적 효과까지도 있다 하겠다.

반면 시장개방을 반대하는 입장은 어떠한가. 요약하자면 앞에서 열거한 장밋빛 논리는 결국 한쪽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이야기다. 한미 FTA를 통한 혜택은 일부 산업에만 돌아가고 나머지 대부분의 산업들은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등 주력제품의 경우 일찍부터 국제경쟁에 노출돼 시장개방을 하더라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가격이나 기술면에서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농업과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개방과 동시에 경쟁에서 도태되고 그들은 사회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내 대기업들은 미국시장이 확대 개방되는 효과를 누리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국내 시장의 파괴라는 피해를 겪게 되니 결국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산업 간, 기업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가뜩이나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농업이나 중소기업종분야가 왜 거대산업, 대기업, 나아가 한국경제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느냐는 논리는 많은 사람들의 공분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또 피해 당사자들의 생계를 담보로 한 적극적 저항 또한 간단치 않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듯 팽팽하게 맞선 두 입장간의 논쟁은 쉽게 끝내기 어려운 문제다. 마치 한 입에 덩석 먹을 수도 또 안 먹고 빼앗길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 같다고나 할까? 하지만 이즈음에서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어 보자. 과연 시장개방은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에 약일까? 독일까? 나는 한번 투약해 봄직한 약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양극화의 근본문제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과 없는 산업 간의 격차의 문제다. 가격경쟁력으로 치고 나오는 중국의 추격 속에 인건비에 기댄 값싼 생산품 수출은 다 놓치고, 자동차나 철강, 반도체 혹은 IT, BT 분야 같은 기술력을 갖춘 제품들은 관세장벽에 막혀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는 샌드위치 위기상황에서 FTA라는 돌파구는 분명 한국경제의 새 활로를 열어주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 또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사회의 양극화 심화 현상은 개방화, 무역자유화가 근본 원인이 아니다. 오늘날의 양극화는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통

신, IT 등 고기술 인력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기술과 단순기술 노동력 간에 소득 불평등이 확대된 탓이요 이는 범세계적인 현상이다. 취약산업 보호를 위해 우리만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틴다고 소득양극화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우리는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한다. FTA를 통한 적극적인 시장개방으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더욱 확대 발전시켜 분배를 위한 성장파이를 키워나가야 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뒤쳐진 부분은 정책적으로 도와주고, 또 한편 경쟁을 자극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면 길이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 농업, 서비스 분야는 도태될 것이며 노동자 농민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리라는 비관적 사고를 벗어나 지금이야말로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본격적인 시장개방은 농업, 서비스 분야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불러 오겠지만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개발로 수입농산물과는 다른 차별화 전략을 찾아보자. 예를 들어 최근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각광받는 옥수수의 경우 슈퍼옥수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점을 적극 살려볼 수도 있다. 이렇게 농업도 새로운 블루 오션을 개발하고 보다 고부가가치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위기를 기회로 삼아보면 어떨까? 또 정부는 시장개방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득을 취약산업의 구조개선에 적극 투자하여 취약산업인력을 재교육하고 새로운 기술산업인력으로 전환시켜 나가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사회 안전망으로 흡수한다면 시장개방은 오히려 양극화의 완화 더 나아가 해소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이에도 세상은 급격히 변화한다. 지금 이대로라면 날로 글로벌화 되고 있는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산업은 과연 지금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나갈 수 있을까? 중국, 인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후발개도국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굴뚝 없는 첨단 산업을 지향하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산업구조의 선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FTA를 통한 시장개방은 분명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개선을 통해 첨예한 양극화의 산을 넘어 한국경제의 새로운 희망을 쏘아 올릴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긍정적 마인드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 □ 전국경제인연합회장상

논제 1 : FTA에 대한 국민, 기업, 정부의 태도와 방안

# 위기를 기회로 - FTA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방안

청석고등학교  
1학년 1반 고 정 인

농산물 인증 마크 제도의 시행, 국민의 효율적인 소비 태도, 기업의 꾸준한 연구 개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과 객관적인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FTA의 득과 실을 면밀히 살핀다면, FTA는 국민, 기업, 정부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우리는 기왕에 체결된 FTA를 통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0~80년대에 고속 성장을 이어가던 우리나라 경제에 갑작스럽게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이 있었다. 바로 2차에 걸친 '오일 쇼크'이다. 오일 쇼크의 여파는 전 세계를 강타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그 흐름에 벗어나지 못했다. '자원의 무기화'로 이어진 이 사태로 인해 10%에 가까웠던 경제 성장률이 순식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게 되고, 당시에 중화학 공업 위주의 성장이 활발했던 상황에서 석유 값의 급등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발전을 정체시키게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구체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였다. 국민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였고, 자발적으로도 에너지를 아끼자는 인식

을 넓혀가면서 적극적으로 위기 타개에 노력했다.

기업 측에서도 오일 쇼크에 의한 성장 정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석유 회사의 경우 극도의 자원 민족주의로 기름값을 높이기 위해 급급했던 중동 국가들의 정부와 직접 접촉하여 석유에 대한 권리를 얻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기업 자체에서 중동 국가에 석유 제품 공장 설립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는 등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지출도 감수하며 힘을 쏟았다.

이와 같은 국민, 기업, 국가의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오일 쇼크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후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지고, 국가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 해외 신인도 또한 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오일 쇼크와 같이 FTA의 파급 효과는 전 국민에게 미친다. 특히 농민의 입장에서 이번 협정은 매우 위협적인 존재이다.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관세가 철폐되거나 대폭 인하되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격 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경계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농산물이 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없는 것도 아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농민들은 소비자들의 선호와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웰빙 열풍'을 활용하여 농가와 정부가 함께 '농산물 인증 마크'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그 농산물의 품질과 신선도, 몸에 이로운 농산물인지의 여부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농촌의 농산물이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값싸고 신선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농민의 철저한 대비 못지 않게, 농민이 아닌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태도 역시 FTA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가장 우려해야 할 점은 미국산 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지나친 미국 제품 소비이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고급 자동차로 많이 알려진 브랜드의 제품이 관세가 철폐됨으로서 값이 낮아지고 과시욕에 의한 소비 행태로 외제차 판매가 급증할 것이다. 또한,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미국 이외의 국가, 특히 일본의 자동차



회사 역시 관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 수입 차의 비중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과시욕에 의한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인 소비 활동을 지양해야 한다. 소비자가 얼마나 현명한 소비를 했는지의 여부는 얼마나 효율적인 소비를 했는가에 달려 있다.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외제차를 구입하여 높은 연료비와 관리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은 비효율적이다. 나의 경제 수준과 이용 목적 등 실용적인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소비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기업 역시 FTA 체결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주체이다. 의료, 교육, 법률 등 지금까지 외국의 회사와 자본이 진입할 수 없었던 시장에서는 이번 개방으로 많은 국내 기업이 미국의 거대 기업과의 경쟁에 밀려 붕괴하거나 미국의 자본에 흡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FTA 과정에서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지적 재산권의 체계가 구체적으로 정립되고, 철저히 보호되어 상대적으로 지적 재산권에 대해 신경 쓰지 않던 우리 기업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는 달리, 외국 자본의 국내 진출을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여, 투자를 받은 우리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한, 미국의 산업 기술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우리 기업의 기술 발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일부 분야에서는 FTA 체결로 인해 대미 수출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FTA에 대비하여 꾸준한 연구 개발과 고급 인력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 FTA로 다소 유리한 조건을 얻은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과 전 국민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FTA를 계기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체계를 확고히 하여 기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분쟁을 방지하고, 다른 나라의 기업에 우리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측과 FTA 체결을 주도한 정부의 책임도 막중하다. 국민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말한 기업의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해 교육 관련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각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를 발굴하고,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상품의 해외에서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 이미지와 신용도를 높이려는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FTA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의 FTA 관련 보도 자료들에서는 FTA로 연계 되는 긍정적 측면만이 강조되어 있고, 부정적 측면에 대한 언급은 극히 적다. 한편, 일부 시민 단체에서는 FTA의 부정적인 면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국민의 감정적 대응을 유도한다는 인상을 준다. FTA 협상에 직접 관여한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FTA의 장점만을 홍보하기보다는 마이너스 요인 또한 객관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시민 단체의 상반된 의견 사이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FTA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미국과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은 앞에서 겪은 오일 쇼크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피해만을 가져온 오일 쇼크와 달리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위기인 이번 FTA 체결을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농가의 우수 농산물 인증 마크 개발과 직거래의 활성화, 국민의 현명한 소비 생활, 기업의 적극적 투자, 정부의 구체적 지원책과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같은 철저한 대비와 올바른 경제생활의 태도가 적절히 조화된다면 한미 FTA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는 물론, 예상을 뛰어넘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개방화, 세계화의 흐름을 거역하는 주체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이번 FTA 체결로 우리나라가 지구촌에 불고 있는 개방화, 세계화를 주도해 나가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 □ 중소기업중앙회장상

논제 1 : FTA에 대한 국민, 기업, 정부의 태도와 방안

# FTA에 대한 우리의 역할

대구 남산고등학교  
2학년 4반 이 셋 별

프랑스의 집권자였던 나폴레옹은 영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영국의 무역활동을 방해하였다. 그는 영국의 무역 상대국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무역로를 차단하여 영국에 큰 타격을 가져다주었다. 이 사건은 무역이 한 국가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정보, 기술의 발달로 세계화가 가속화 되면서 무역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최근 FTA추진 속도가 더 빨라지고 크기도 대형화하고 있어 세계에서 FTA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FTA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해 무역장벽을 낮추는 협정이다. 따라서 FTA에 속하지 않는 나라는 무역 활동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회원국이 많아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던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FTA는 협상이 장기간을 소요하지 않는다.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의 경제 구조를 고려한다면 FTA는 한국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무역이 확대되어 수출이 증가하면서 반도체 산업, 조선 산업과 같이 경쟁력이 강한 산업은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외국인의 투자가 증가하고 외국공장이 국내에 설립되면 일자리 창출과 선진 기술 수용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멕시코가 IMF의 위기를 겪었을 때 미국이 즉각 경제 지원을 해준 사례에서 볼 수 있

듯이 FTA를 맺은 국가 사이에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부상조하여 국가 간 이익을 극대화 한다. 소비자들은 관세 철폐로 인해 값싼 가격으로 다양한 수입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낮추고 외국 기업보다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결국 선택의 폭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은 예전과 같은 가격으로 질 높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 축산업과 같이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는 외국 시장에게 수출시장을 빼앗기게 되면서 생산력이 감소하게 된다. 이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다른 산업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된다. 한편 소수의 정규직에게는 안정적인 근로환경, 높은 임금을 제공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와 같이 FTA체결은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부정적 효과도 가져온다. 하지만 국가 간 교류가 중요시되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려면 FTA협상은 불가피하다.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정부, 기업, 소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부문에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경쟁력이 강한 부문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경쟁력이 약한 부문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보상은 오히려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유럽의 복지병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산품의 경우, 고품질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연구 센터,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농민들에게 효율적인 농사법을 보급해야 한다. 축산업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우리 축산물들의 안전성을 인식시키고 국가 단위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사료에 한약재와 같이 몸에 좋은 성분을 첨가시켜 축산물의 고급화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경쟁력이 약한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인 개방정책으로 미리 준비, 대응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스크린 쿼터제나 농산물의 점진적 개방이 그 예이다. 외국인의 투자 유치에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혜택을 많이 주어야 한다. 중국은 적극적인 해외 기업 유치로 국가 경제가 크게 활성화 되었으며 선진 기술을 습득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장 설립 절차가 까다로워 외국 기업들이 진출하기 꺼려

한다. 일자리 창출, 지역 개발을 위해서라도 외국 기업 유치는 중요하다.

기업은 외국 기업과의 기술교류로 선진 기술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연구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IT 산업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연구와 선진 기술의 덕분이었다. 또한 기업가들은 혁신적 경영 방식으로 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해야 한다. 사원을 뽑을 때도 학벌위주가 아닌 실력위주로 선발해야 하며 회사 내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개선하여 의견교환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무 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별화 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여야 한다. 기업들은 세계시장을 주 수출무대로 하되 나라별로 차별화된 수출 전략을 계획해야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 푸드점인 맥도널드는 인도가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고기대신 양고기, 염소고기 등으로 대체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기업가들은 기업가 정신을 잘 살려 세계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국민은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외국 제품이라고 맹목적으로 사지 말고 가격과 품질을 꼼꼼히 따져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이는 기업 간의 경쟁의식을 일으켜 소비자가 좋은 품질의 물건을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문화적 개방에 있어 무조건적인 사대주의나 국수주의를 피해야 한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서구의 것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우리 고유의 것은 천대하는 경향이 있다. 각 문화마다 나름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편협한 시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방에 대한 올바른 자세이다.

중세 유럽에서는 보호무역으로 수출만 장려하고 수입을 제한하여 제대로 된 무역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 후 무역에서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자유무역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오늘날은 세계화로 인해 보호 무역이나 무역장벽이 거의 대부분 철폐되었다. 무한 경쟁 시대에서 무역을 통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올바른 태도가 필요하다.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FTA를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국민, 기업, 정부 각각의 주체가 해야 할 일을 찾아 실보다 득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상

논제 1 : FTA에 대한 국민, 기업, 정부의 태도와 방안

# 정부는 정부답게, 기업은 기업답게, 국민은 국민답게

대일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4반 정 연 우

지금은 21세기다. 그리고 지식정보화 사회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간다.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퇴락의 길을 걷게 된다. 이는 한 학생의 전공 선택에서부터 한 사회인의 직업선택에까지 골고루 적용된다. 국가 또한 그 적용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그 당시의 상황보다는 흐름이 중요하다. 현재 최고의 나라라도 적응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고 작은 나라라도 기회만 잡으면 세계 최강으로 올라서는 것은 금방이다. 고구려는 당대 동아시아에서의 최강의 국가였지만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무너졌고, 시대의 흐름을 읽고 기회를 잡은 이성계는 조선을 세워 한 반도를 다스렸다. 과거 많은 국가들의 흥망은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논어’에서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임금과 신하, 아버지, 자식이라는 것을 정부와 기업,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구절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정부가 정부다우려면 정부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란 기업과 국민이 할 수 없는, 국제사회에서의 공식적 행동을 하는 것이다. 자유무

역협정은 국가 간의 ‘협정’이다. 일개 기업이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부각된다. 국제적인 관례를 따르면서 자국의 위상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부대의 ‘장군의 태도’와 국내 여론과 기업인들이 국가를 돕게 만드는 ‘적극적 중재자의 역할’을 동시에 보여주어야 한다. ‘장군의 태도’는 상대방과 협상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상대방에게서 최대한으로 얻어올 수 있는 설득력과 우리 것을 내어주더라도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과감한 결단력으로 나누어진다.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조리 있게 설득하고, 때로는 국가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게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결단력도 필요하다. ‘적극적 중재자의 역할’은 각 직업별 이익 집단의 수많은 불만들을 처리하는 능력이다.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이익 집단의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이런 불만들을 때로는 과감하게 막고, 때로는 보조금과 같은 보상으로 달래주어야 한다.

기업이 기업답다는 것은 그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업이 가진 것이라고는 돈 뿐이다. 대기업의 경우는 상대방 국가에 지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 경우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이는 모든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벌어서 정부가 협정을 맺는 동안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내고, 사업을 확장해서 일자리를 늘린다. 기업이 낸 세금은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시장이 개방되면 기업의 무역활동도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세금이 더 큰 이윤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또, 활발해질 통상환경을 위해 미리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 두어 시장이 열리면서 사라질 직업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또한 기업의 이윤으로 돌아 올 것이다. 기업은 돈을 벌어서 좋고, 정부는 정부가 원했던 방향으로 협정을 맺을 수 있어서 좋고, 국민들은 일자리가 늘어서 좋으니 이것이야말로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국민다워지려면 현재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 하면서 새로운 기술도 배워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분명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

런데 정부와 기업은 선진국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국민이 그들의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는가.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들도 생겨날 것이다. 석탄 산업이 사라지면서 탄광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그러니까 미리 배워두기 시작해야 한다. 또,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자신의 직업이 사라진다고 불평만 해서 안 된다. 국민은 정부의 지휘아래 기업을 도와 국가가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젊은 층은 대기업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자신이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서 그 기업을 대기업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일해야 한다. 대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유능한 인재들이 몰려서이다. 중소기업들도 유능한 인재만 있다면 충분히 대기업이 될 수 있다. 현재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인재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줄 것이고,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국민들의 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학적 관점 중에는 기능론이라는 것이 있다. 각자가 각자의 일을 할 때 사회는 발전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을 때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지금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의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나라를 구성하는 각각의 주체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여 국가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 □ 한국개발연구원장상

### 논제 2 : 시장개방에 따른 양극화 가능성

## 한미 FTA, 우리의 미래

연수여자고등학교  
2학년 4반 김 경 아

최근의 한미 FTA 협정 체결은 우리나라가 개방화의 새로운 국면에 발을 들여놓음을 의미한다. 물론 그 전에도 칠레와의 FTA 협정 체결이라는 전례가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개방의 정도나 범위에서 분명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과연 우리나라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지 오히려 피해가 될지에 대해 찬반논쟁이 거세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우리보다 경쟁력 있는 미국 기업이 시장을 모두 휩쓸어 한국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하겠다. 교역은 비교우위에 있는 물품을 특화하여 생산할 때 훨씬 효율적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절대 우위에 있는 모든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경쟁력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만들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특화하여 생산하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즉 교역을 통해 국가의 부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유무역을 하는 것은 분명 이득이다. 그럼에도 반대하는 목

소리가 큰 이유는 자유무역의 혜택이 사회 각 계층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자유무역을 통해 국가적으로 이득을 본다는 것은 피해 규모보다 이익의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을 말한다. FTA를 추진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후생을 높일 수 있지만 손해를 보는 계층도 생기게 된다는 것인데, 손해를 보는 대표적인 계층은 농민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FTA를 진행하는 것은 분명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때문에 이 피해자들을 다각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통해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방법도 있고, 실업 문제에 관련하여 정책적인 대책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 보상은 농업 생산의 정부 의존도만 키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액을 지원해주는 소극적 자세보다는 장기적인 대책 수립에 비중을 두어 시장 개방에 따른 위축 산업의 노동자들이 다른 산업 분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을 하고 산업 정책을 세워야 한다.

사실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농업 분야에서 큰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인 ‘농업 붕괴론’은 우루과이라운드, 칠레와의 FTA를 진행할 때도 되풀이됐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농업 부문 국내총생산이 증가하고 농가 소득이 늘어나는 등 우리 농업은 오히려 성장했다. 또 지난 6월에는 평택에서 생산된 경기미가 미국에 수출되어 우리 농업시장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새로운 농법 연구와 브랜드화, 전통 식품의 세계화 등으로 부가가치를 키우면 얼마든지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또 농업 산업 단지를 건설한다든지, 시설 현대화를 통해 농민들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 더 큰 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와 경쟁력 확보가 뒤따른다면, 한미 FTA는 분명 몰락이 아닌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또 반대론자들은 NAFTA의 실패 사례를 예로 들어 한미 FTA가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NAFTA 체결 시 멕시코 국민들은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으로의 이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로 인해 NAFTA 상황을 잘 활용한 사람은 이득을 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현 우리의 시점에서 자유무역을 이루어지게 되면 위축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적지 않은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이 때 나타나는 실업은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능과 기술이 없거나, 기존 산업이 쇠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이다. 이는 산업 간에 불균형이 생겼을 때 전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아닌 특수한 종류의 산업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장산업으로의 노동의 이동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구조적 실업은 충분히 극복가능하다. 이러한 신속한 이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선이나 산업 전반의 재편을 통해서 합리적인 산업정책을 세워야 한다. 직업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취업교육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으로 실업 문제를 해결하면 양극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의 피해 보상 대책이 미흡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FTA 체결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교역은 기술과 마찬가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즉, 기술이 발전하면 당장은 일자리가 줄어들지도 모르나, 그 기술의 파급 효과와 더불어 새로운 직종의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 마찬가지로 FTA도 역시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붕괴되는 산업이 생기고 실업자가 늘어나겠지만 점차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노동력이 이동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풍요를 누리며 여가와 문화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관광, 레저 등의 업종이 개척되고 실업 해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FTA 체결로 일자리가 창출되면 이것 역시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보호무역은 일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소비자 전체의 후생을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자유무역협정은 상대국 모두의 이득을 보장할 것이다. 현재의 피해 보상 대책이 미흡하다고 FTA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는 아니다. FTA가 가져다 줄 손익을 균형 있게 살핀 후 협상을 하는

데 있어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보상과 지원 대책 등을 통하여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면 FTA는 국가적 이익증진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상

논제 1 : FTA에 대한 국민, 기업, 정부의 태도와 방안

## FTA는 도약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대일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5반 김 세 호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타결을 신호탄으로 하여 우리나라는 점차 외국에 시장을 개방해 나가고 있다. FTA를 체결함으로써 세계를 무대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FTA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를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심대한 피해를 안겨주는 양날의 칼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개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FTA를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 중국의 무서운 추격과 앞서 가는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에게 FTA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FTA의 의미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에 대한 준비는 세계 11대 경제대국이라는 지위가 부끄러울 만큼 한심하다.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이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하 모든 매커니즘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 기업의 잘못된 결정은 국가의 경제주체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혁신을 이루어 시장개방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혁신을 위한 투자에 인색하다.

혁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경영방법의 혁신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의 혁신이다. 기업들은 하나 같이 경영상의 혁신을 외치며 구조조정에만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상의 혁신 한 가지만 이루고서는 세계시장에서 경

쟁할 수 없다. 세계시장에서 기타 선진국과 대등히 겨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상의 혁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기본기라고도 할 수 있는 기초과학기술에 투자 하지 않고 경영상의 묘수만을 찾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계를 무대로 성공할 수 없다. 지금 개방 앞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분야들은 하나같이 기술혁신에 투자 하지 않은 분야들이다. 섬유산업이 대표적 예이다. 다른 나라들이 신소재, 디자인 같은 섬유산업에서 기초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더욱 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 하고 있었다. 이런 기업의 태도의 차이가 선진국과 중진국을 가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외국 섬유 산업계의 투자로 인해 외국에서는 디자인 학과, 신소재 학과 그리고 사회 기타 많은 부분의 전문지식인력들의 일자리가 다량 창출 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소득으로 전환 되었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이익을 보았다. 이에 반해 한국은 기초과학 투자에 관심을 쏟기 보다는 생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필리핀 등지에 공장을 건설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일자리가 창출 되지 못했고 국민들이 얻지 못한 소득들은 고스란히 기업에게 내수의 부진을 가지고 왔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경제 매커니즘의 중심은 기업이다. 정부와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기업이 바뀌지 않는한 세계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뒤에서는 중국이 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며 한국의 기술력을 위협하고 있다. 더 이상 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기업들은 하루빨리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사회의 지식 인력들을 흡수해야 한다. 그들이 내수를 창출하는 국민이며 고기술 산업의 진흥만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최종재 위주의 산업 구조를 타파하고 고기술 산업인 기초소재 핵심부품 제작에 뛰어들어야 한다. 기초소재 핵심부품을 제작해낼 수만 있다면 중국의 제조업 붐에 힘입어 엄청난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 중국의 성장을 두려워하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중국의

성장을 역으로 이용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 방법은 앞서 밝힌 것처럼 기초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로 기초소재 핵심부품을 개발해내는 것이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상품들의 핵심부품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우리는 중국의 성장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내에 공장을 설립 한다면 중국과 FTA를 맺은 여러 나라에 무관세로 핵심부품들을 판매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거대시장이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전 세계에 무관세로 핵심부품을 팔 수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핵심부품을 개발해낼 수만 있다면 일본의 고기술 부품들과도 겨룰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 중국을 이용해 수익도 창출하고 더불어 일본과도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즉, 기술 혁신은 내수의 창출, 사회 기초기술의 발전 그리고 중국 제조업의 역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난국 해결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적 태도는 산업뿐 아니라 농업, 축산업,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모든 분야에 필요한 태도이다. 그러나 혁신을 기업 혼자서 이룰 수는 없다. 정부와 개인, 그리고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합할 때만 혁신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먼저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료주의를 탈피하고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규제는 기업에게 비용과 같으며 이 같은 비용이 기업의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정부는 기업의 자본과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기업들은 기업들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신속성은 기업들에게 큰 경쟁력을 부여하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셋째로, 정부는 기술적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 하여 외부효과를 내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기업들이 조금 더 의욕적으로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핵심부품 제조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먼저 정부는 고등 및 대학교육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학자금 융자 등을 활성화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가능인구의 양적 부족을 고급인력이 질적으로 보충해 줘야지만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수 노동력을 양성하는 것과 더불어 비교 열위 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새로운 지식과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에게는 기업 못지않은 혁신과 희생이 요구된다. 개인에게 요구되는 희생은 두가지로 압축 할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개인적 희생이다.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게 된 만큼 개인들도 세계의 우수한 전문 인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역량을 쌓아야 한다.

두 번째 희생은 공동체를 위해 눈앞의 작은 이득을 잠시 뒤로 미뤄두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개방화 앞에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은 파이를 어떻게 나누느냐를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다. 분배는 승자의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개인이 조금씩 희생하여 전체가 나눌 수 있는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 매커니즘의 중심인 기업, 그를 보조하는 정부 그리고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는 국민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FTA를 성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선진국으로부터의 추격을 물리치고 세계시장에서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 세 주체가 각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우리는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의 쾌거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 □ 산업연구원장상

### 논제 2 : 시장개방에 따른 양극화 가능성

## 콜럼버스의 달걀

인천 영선고등학교  
2학년 4반 박 송 희

FTA체결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FTA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만연하다. FTA가 시장개방의 대표적 예이고, 시장을 개방할 경우 무한경쟁 상태로 뛰어들게 되므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에서 시장개방과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시장의 개방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의존도와 관세율 추이와 소득불평등 추이를 비교해 보면, 1980년대 후반부터 무역의존도는 증가하고 관세율을 낮아지면서 개방이 확대되기 시작했으나 소득불평등은 80년대 전반부터 90년대 전반까지 완화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악화되었다. 이 결과를 볼 때 소득불평등 악화의 원인이 시장개방이라기 보다는 1997년 맞은 외환위기와 그로 인한 구조조정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선입견을 버린다면 FTA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충분히 가능하다.

FTA로 인해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이렇다. FTA 후 우리나라의 농업, 재래 유통시장, 전통중소기업 등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농업부문에서 미국의 농업은 생산력, 가격 면에서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국농업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또 농업의 붕괴는 농촌의 붕괴로 이어지며 농촌인구가 도시로 몰리고 도시빈민이 증가될 것이다. 제조업 분야 역시 관세인하의 효과가 미미하고 관세인하 후에도 우리보다 임금이 싼 중국, 방글라데시 등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다. 재래시장과 중소기업이 약세를 보일 것은 자명하다. 일자리가 확충 된다고 하지만 컨설팅, 법률, 회계 컴퓨터 등의 고급 서비스직에 국한된다면, 일자리 창출의 혜택은 기존 상위계층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된다.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게 된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FTA를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고 필수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걱정과는 달리 FTA가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첫째, 농업과 제조업 등 피해산업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세워놓았다. 제조업분야에서는 무역조정지원법을 신설하여 FTA에 따른 실업자들의 전직과 재취업 교육은 물론이고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농업분야에는 2013년까지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농업 살리기에 나설 것이다. 개방으로 인한 당장의 직접적 피해 지원과 장기적으로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구조로 개편하는 일을 동시에 할 예정이다. 또 품목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를 쉽게 구별하기 위한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내년 부터 시행된다.

둘째, 재래시장과 중소기업에게는 FTA가 도약의 큰 기회이다. 재래시장과 중소기업은 FTA체결 전에도 국내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는 형편이었다. 이제 외국의 유통기업과도 경쟁해야하는 지금이 오히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번 기회에 중소유통에서 생기는 구매와 물류비용을 공동화와 조직화로 줄여나가고, 영세기업체를 프랜차이즈형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상인들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축제와 재래시장을 연계시키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이 가장 먼저 나서야한다.

셋째, 질 좋은 일자리의 상승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일이 아니다. FTA체결이 외국인 투자를 증가시키면서 일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의 52만 개가 외국인 투자에 의해서라고 하니 그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정보통신·항공·금융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과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면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예측은 너무 선부르다. 좋은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기회가 많다는 것을 뜻하고 교육기회의 평등보장 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다. 정부가 급변하게 될 산업 인력 수요 변화에 걸 맞는 맞춤형 인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상위계층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넷째, FTA체결에 따른 경제성장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다. 멕시코는 FTA체결이후 실질 임금이 올랐으며 GDP도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우리나라는 대외교역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뤘으며 명실상부한 통상 국가이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원활한 진행과 확대가 필요한데 세계통상은 점차 지역주의를 향하고 있다. 대외경제 규모가 70%이상을 차지하는 우리에게 FTA를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FTA체결로 통상마찰이 줄어들면 우리나라의 수출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조사결과 FTA체결 후 한국 제품 수입을 늘이겠다는 미국 바이어가 60%였고, 중국제품 대신 우리나라 제품을 택하겠다는 비율도 36%나 되었다. FTA체결이 어찌면 모험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로 무장한 모험은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이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달걀을 세워보라고 제안하고,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그는 해냈다. 그는 달걀을 삶고 끝의 껍질이 깨지게 한 뒤 달걀을 세웠다. 그는 달걀을 세우기 위해 달걀껍질이 조금 깨지는 것을 감수했다. 그가 껍질을 깬다고 세운 달걀이 곧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달걀을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경제가 달걀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문제인 것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맞고, 그것을 벗어나는 데에만 급급했던 터

라 우리경제는 큰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FTA 체결에 따른 위험부담이 달걀껍질을 깨야하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것이 라면, 콜럼버스가 했던 것처럼 결단력 있게 그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것이 현명 하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삶은 달걀처럼 알찬 준비와 대책만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세울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 □ 장려상

논제 1 : FTA에 대한 국민, 기업, 정부의 태도와 방안

# FTA대표팀,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부산 금성고등학교  
2학년 4반 김 태 영

얼마 전, 아시안컵에서 보았듯이, 축구경기의 승부는 공격수(FW), 미드필더(MF), 수비수(DF)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것과 세 구성원들 간의 팀워크로 결정이 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FTA역시 축구경기처럼 국민, 기업, 정부 세 주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있다. 먼저, FTA는 특정국가간의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지난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 가속화되는 지역주의와 함께 FTA(자유무역협정) 역시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

FTA의 확산에 따라 국제 통상환경 역시 변화함에 따라 그 체결 이후의 장, 단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 전 세계 교역량의 절반 이상이 FTA체결국 내에서 이루어 졌고,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와 기업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체결국 간의 여러 가지 무역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 이전보다 체결국간의 무역이 훨씬 더 활발해지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협상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이 이런 국제통상 환경 속에서 쇠퇴함에 따라 실업 및 사회문제 등의 단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FTA체결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의 주체인 국민, 기업, 정부의 태도가 중요하다. 즉, 이 세 주체는 FTA에 대한 각각 확실하고 올바른 태도를 확립하여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이러한 FTA체결 이후 통상환경 변화에서 수비수 역할을 하는 국민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예전부터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소비를 하는 국민이었다. 소비로써 경제를 움직이는 국민에게는 그 이전 보다 규모가 훨씬 커진 시장에서 올바르게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하다. 가령, 협상대상국과 국내 산업이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둘 중 조금 더 괜찮은 쪽을 국민이 선택함으로써 산업 간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FTA체결 이후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뛰어난 협정대상국 산업보다는 국내 산업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경우 모두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보진대 통상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FTA가 가져올 장, 단점에 대해 국민 스스로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여론을 조성하여 불리한 통상환경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의 주요 주체인 국민이 FTA 체결에 감시자의 역할을 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내고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FTA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축구에서 수비수가 상대팀의 공격을 막고 팀의 주도권을 쥐 기회를 마련하는 것처럼 국민은 FTA에 대해 주체적인 태도와 안목을 갖고 정부와 기업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FTA 체결 후 공격수 역할을 하는 기업이 취해야 할 태도이다. FTA는 각종 무역규제 완화를 불러 일으켜 이전보다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항상 무역에서 직접적으로 세 주체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받는 기업에게 있어 FTA는 협정대상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해 우위를 점함으로써 기업의 이윤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업은 기존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에서 확실하게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그

나라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축구에서 공격수가 상대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을 드리블하여 골을 넣듯이, 기업 역시 협정대상국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 그들의 경제에 비수를 꽂는 것도 중요하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FTA협상 체결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우리나라 농업의 경우 낮은 생산성과 고령자 중심의 생산구조가 가장 큰 문제인데, 만약 이러한 농업구조를 기업이 적극 나서서 해결하고, 특히 농림부가 선정한 수출 유망 30대 상품 중 협상대상국에서 수출할 수 없는 김치, 전통주, 고추장, 된장, 간장 등과 같은 희소성을 지닌 상품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운다면 협정체결국 시장을 차츰차츰 점유해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항상 열린 자세와 진취적인 태도를 갖고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보며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의 주요 주체이자, 축구의 주도권을 잡는 미드필더역할을 하는 정부는 FTA협상을 추진하는 만큼 앞서 말한 두 주체보다 그에 따른 준비가 훨씬 더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준비로써 첫째, 국내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차원의 지원이다. 특히 제약 산업에 있어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 제약기업의 매출액은 향후 5년간 연 570억~1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약인프라부터 선진화를 시키고 기존의 복제약 중심의 제약 산업을 신약 중심의 산업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R&D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제약 산업보다 훨씬 더 민감한 농업분야 역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특히 농업분야에 대하여 직접적인 피해 지원을 하기보다는 농업구조를 기업 중심의 경영으로 바꾸는데 지원을 한다거나, 농업 관련 전문가를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재정적 지원보다는 스스로 변화하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정부가 수조원의 지출을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 대해 퍼 부어도 그 산업 스스로가 자활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택한 재정적 지원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차원이나 산업 분야별 인력 재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앞으로 FTA의 확산에 맞서 유능한 협상대상국 관련 전문가들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협상대상국에 대하여 그들 보다 많은 정보를 가져 체결국간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거나 협상중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 하에 FTA를 체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FTA 전문가들을 육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칠레의 경우 최근 디지털경제로 급속히 전환되어 가고 중남미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1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우리의 IT산업이 칠레에 진출하도록 최대한 도울 수 있다. 또한 내수시장과는 달리 해외에서는 휴대폰이 다양한 기능보다는 저렴한 가격을 선호한다는 점을 미리 알고, 관련 기업에 사전에 통보해서 기업이 이윤을 내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미드필더가 중앙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공격과 수비를 원활히 하는데 기여를 하듯이,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기업이 최대의 이윤을 내도록 통상환경을 제시하거나 만들어주는 것이 FTA협상체결 이후, 정부가 취해야 할 효과적인 태도일 것이다.

FTA(자유무역협정)협상에 따른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제시한 세 주체들의 올바른 태도에 달려있다. 축구에서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팀워크로 경기를 이끌어나가듯 세 주체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다. 즉, 국민은 감시자 역할을 통해 통상환경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다. 기업은 국민이 지적한 문제점과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항상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하며, 정부 역시 국민의 여론을 수용하고 기업이 항상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FTA체결 후 결과를 유리한 쪽으로 이끌도록 노력해야한다. 요컨대 지난 구한말 세계 경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저지른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갈수록 확산되어가는 FTA에 대하여 국민, 기업, 정부 즉 FTA대표팀 구성원 모두 항상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상호간의 협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 장려상

논제 1 : FTA에 대한 국민, 기업, 정부의 태도와 방안

# FTA시대, 바람직한 대응방안

경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9반 최보윤

2002년 10월 25일 칠레와의 FTA 타결로 우리나라도 FTA 체결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싱가포르, EFTA, ASEAN과 잇따라 타결하면서 2007년 4월 2일 한미 FTA가 체결되었다. 현재 일본이나 캐나다 등 다른 국가와의 협상도 진행 중이다. 한미 FTA 협상 무렵 뜨거운 찬반 논란이 있었다. 특히 반대론자들의 거센 반발은 이미 체결이 된 상태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조류이다. 체결을 되돌릴 수도 없다. 현명하게 대처하여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소국이므로 FTA체결을 단순히 시장개방에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성장과 미국 시장 개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한미 FTA 체결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논쟁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따라서 정부의 리더십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FTA가 지금 당장은 손해일지 모르나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알려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실제, FTA체결로 가장 양호한 성과를 이룬 칠레도 처음에는 FTA가 환영 받지 못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칠레 정부는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주요 협상 중에 옆방에 각 계의 대표들을 머물게 한

후 협상 결과를 바로 알리는 ‘옆방 즉시 보고’ 관행을 마련하여 이해단체들과 꾸준히 소통하였다. 이렇게 이끌어 낸 국민들의 동의와 신뢰는 성공의 주춧돌이 되어주었다. 이런 칠레 정부의 성실한 소통은 우리 정부가 눈여겨볼 만하다.

FTA는 앞으로 경제 성장을 통해 국민 전체 삶의 질을 끌어올려 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레 양극화 해소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극화 현상이 굳이 FTA가 아니더라도 자본주의 사회라면 어느 국가든지 떠안고 있는 문제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FTA로 인해 마련된 재원과 창출된 고용을 알맞게 분배해야 한다. 실제로, 향후 10년 이내에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한다. 늘어나는 부를 고르게 분배하는 일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방출되는 노동력을 재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해 성장부문의 생산과정으로 흡수시키는 일은 정부의 몫이다.

FTA 체결 시 가장 우려했던 것은 미국에 비해 취약한 산업의 몰락이었다. 특히 농·축산업분야가 몰락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농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 따라서 정부의 생산비 지원과 같은 적극적인 보조가 필요하다. NAFTA가 체결되었을 때 많은 미국 농민들이 멕시코산 농산물 때문에 몰락할 것이라고 아우성쳤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지원과 보조금 지급 덕에 결국 고품질의 농산물을 재배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우리는 1차 산업인 농업을 3차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품종을 개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쌀’의 명품화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반면 전자·IT산업과 같이 수출증가 예상품목은 더 나은 산업 환경을 제공하여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주력해야 한다. 한·칠레 FTA 발효 이후 핸드폰, 컬러 TV 등에 붙던 6%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한국산 전자제품이 돌풍을 일으킨 것으로 볼 때 미국에서도 가격 경쟁에 있어서는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품질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각국에서 ‘품질 보증 마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품질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다음,

A/S와 같은 서비스 부문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에 비해 우리의 서비스 분야는 취약하다. 하지만 고객만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칠레와 캐나다 등 우리보다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가 위기를 극복한 저변의 공통된 사실은 국민들의 동의다. FTA가 국내 기업의 파산과 더불어 경제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근시안적 태도는 버려야 한다. 현 세대와 더불어 후손들을 위해, 장기적인 이익을 두고 볼 때 FTA 체결은 시기상조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지금은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을 잠시 접어두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할 때이다. 그리고 무조건 외제를 선호한다던가, 무조건 국산을 선호하는 편협한 태도를 버리고 객관적이고 현명한 소비자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FTA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역사상 개방이 언제나 성공을 이룬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항상 기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GATT와 WTO는 우리의 경제 발전을 대외 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하고 있다. 또한 96년 유통시장 개방이래,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이마트나 삼성홈플러스 등이 월마트나 까르푸를 밀어내고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삼성이나 LG 등 국내 브랜드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일본과 중국에 앞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먼저 FTA를 체결한 것은 앞으로 가격 경쟁력 면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일이다. 동북아 경제의 허브를 목표로, FTA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좋은 기회를 창과 방패로 잘 활용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

## □ 장려상

논제 2 : 시장개방에 따른 양극화 가능성

# FTA를 통해 평등한 경쟁사회 이룩하기

광문고등학교  
2학년 14반 민 하 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즉,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데는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라의 초석이 될 인재를 키우는 데 100년의 계획이 필요하다면 나라의 앞날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정책에는 그 이상의 계획이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 도시문제와 같은 대부분의 사회문제들은 이런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안목에서 정책이 수립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FTA에 관한 논쟁의 기본 태도 또한 이와 같아야 한다. 항간에선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과의 FTA는 곧 빈부격차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FTA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경쟁에서 도태되어 실업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FTA가 체결되면 국제신용등급이 상승하고 외국인투자가 많아져 전체적으로 상당한 수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LG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에 의한 직·간접적인 고용창출이 지난 00~04년 전체 고용창출의 20%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곧 양극화 해소의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농업

등 일부 업종의 피해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농수산물의 '브랜드화' 및 고급화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한미 FTA 체결 이후 여타의 육류와는 달리 고급한우의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FTA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4월 제조업등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 법안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은 정부로부터 특화된 전직, 재취업, 또는 품질 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아 FTA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는 달리 선진국과의 FTA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섬유, 의류, 가죽, 고무 및 신발 등과 같이 미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 중 다수는 중소기업 제품이다. 즉 FTA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FTA를 통해 양극화가 완화될 것이라는 또 다른 근거는 경쟁을 통한 물가 하락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의 가격과 품질 면에서 뒤쳐지고 있다. 그런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면 초기에는 일부 경쟁력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하지만 점차 경쟁에 적응하여 살아남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더더욱 낮은 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물론 FTA 상대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경쟁에 의해 점차 물가가 낮아져 서민 경제가 안정될 것이다. 즉, 서민들의 삶의 질이 확대됨과 동시의 양극화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을 위해 실업급여지급, 고용보험제도 등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정책 또한 추진되어야 한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개방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어떤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가 바뀔 때 산업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산업 혁명 당시에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영국

사회는 매우 혼란해졌다. 실제로 기계화 때문에 실직자가 된 일부 노동자들이 격분하여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을 전개했을 정도이다. 하지만 산업혁명 당시의 혼란상을 통해 우리는 높은 삶의 질을 확보하고 쾌적한 민주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 FTA 또한 혼란기를 거쳐 곧 전체적인 국가 경제 수준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